

여수시, 폭염에 이어 가뭄 대응… 농업 분야부터 살핀다

소라면 저수지·긴급 급수 현장 점검 및 신속 대응 당부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폭염에 이어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재해 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농업정책과, 건설과 등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농업 분야를 최우선으로 가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7~8월 평균 강우량은 78mm로 전년 대비 42% 수준이며, 저수지 저수율도 평균 52%에 그치는 등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13일 소라면 현장을 찾아 농업용수 공급원인 저수지의 저수율과 강우 의존도가 높은 천수답 논·밭의 긴급 급수지원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서 간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현장을 둘러본 서 시장은 농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을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작목별 관수관리 및 피해 예방 현장점검 ▲읍·면·동 보유 양수기 및 송수호스 무상 대여 ▲용수 공급원이 없는 논 급수지원 ▲논물 가두기와 용수 절약 ▲농업용 면세유 추가 배정 건의 ▲가뭄 취약 농경지 관정 개발 ▲저수지 시설 확충 등 단기 또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에 이어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농경지를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용수 공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는 양수기와 송수호스를 적극 지원해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용수 공급원이 부족한 논과 가뭄 취약지역에는 긴급 급수를 우선 지원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논물 가두기와 물 절약 등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 방법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작목별 생육 상황을 살피며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을 이어간다. 시는 관계부서와 읍·면·동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가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보유 중인 급수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정 개발과 저수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소라면 관기들녘 농업용수 공급원인 죽림저수지 저수율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2026년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 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 통합방위를 총괄하는 협의기구로, 민·관·군·경·소방 등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분기별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방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을지연습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최근 안보 상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손훈모 순천시장은 “을지연습은 안보 위협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라며, “내실 있는 훈련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특산물 재배농가 실태조사 실시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실과 단감·뽕은감 재배농가 900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광양시 특산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양시 대표 특산물인 매실과 단감·뽕은감의 지역별 분포와 영농·경영 실태를 파악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 1년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관내에서 매실 1,000㎡ 이상, 단감·뽕은감 500㎡ 이상을 재배한 농가 가운데 900가구(매실 550가구, 단감·뽕은감 350가구)다.

조사항목은 매실 35개, 단감·뽕은감 32개로, 경영주 기본사항을 비롯해 농업 경영 현황, 생산·판매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조사원이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기입식이나 전화조사로 대체한다.

시는 특산물실태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신문·현수막·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조사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종호 총무과장은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특산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로 마치고 순차 출국

곡성군은 농촌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5개월 동안의 근로 일정을 마치고 8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국하는 인원은 곡성농협에 배치된 계절근로자 19명과 통역인력 1명 등 총 20명으로, 지난 3월 12일 입국해 약 5개월 동안 지역 농가의 영농현장에 투입돼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출국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관내 식당에서 출국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상래 군수를 비롯한 곡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장, 곡성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참석해 환송사와 기념촬영, 오찬 등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

한 귀국을 기원했다. 곡성군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소농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사적 고용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생활을 위해 통역 인력을 배치하고 숙소와 근로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 상담과 생활관리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무단 이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에는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구례군, 8월 정기분 주민세 2억9600만원 부과

구례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 132백만 원과 사업소분 16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개인분 129백만 원, 사업소분 164백만 원을 비교했을 때, 개인분이 소폭 증가했다. 군은 관내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세대주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대상이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재 내용

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해 수정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ARS(☎142211),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관련 안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에 신속히 대응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심선섭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